

신라가요의 국어학적 연구 -"안민가"의 새로운 풀이를 중심으로

저자
(Authors) 서영석

출처
(Source) [동악어문학 33](#), 1998.12, 13-38(26 page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33](#), 1998.12, 13-38(2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악어문학회](#)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1786>

APA Style 서영석 (1998). 신라가요의 국어학적 연구 -"안민가"의 새로운 풀이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33, 13-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1 10: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歌謠의 國語學的 研究

- “安民歌”의 새로운 풀이를 중심으로

徐 暎 錫

目 次

- I. 序論
 - II. 先行研究의 檢討
 - III. 解讀의 實際
 - IV. 結論
-

I. 序論

鄉歌의 解讀은 참으로 어렵다.1) 語學을 위한 해독이건, 文學을 위한 해독이건 향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특히 語學을 하는 사람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다.

필자는 향가의 본고장인 경주에 14년여를 살아오면서 현지 조사를 직접하였고, 대대로 살아온 학생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新羅鄉歌의 難解語 研究”등을 발표한 바 있었다.2) 이를 토대로 새로 정리하여 “安民歌”만을 새롭게 풀이해

1) 新羅歌謠, 新羅詩歌, 訶惱歌, 鄉歌의 名稱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通稱되고 있는 ‘鄉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新羅歌謠’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古代國語를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古歌 연구를 하는 학도들도 역시 鄉歌 연구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의 문학은 향가뿐이기 때문이다.

文學的 측면을 연구하는 사람도 語學的 풀이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어학적 풀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나를 파악해야 올바른 연구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言語學的 측면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문학적 소양은 물론이고, 역사적 또는 종교적 지식 없이는 제대로 풀이할 수가 없다고 본다. 이는 그때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모르고는 언어 생활을 모를 뿐만 아니라, 文學的 감정 표현 방법도 모른다. 왜냐 하면, 言語·文學은 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향가를 해독하는 어학자들의 더욱 큰 고통은 자료가 영성하기 때문에 확실한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古代國語의 言語的 事實들을 — 향가의 언어들 — 10 세기 이후의 訓民正音의 언어를 가지고 비교하여 해독하고자 하니 誤讀이 난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5 세기 이후의 언어를 가지고 3·4 세기의 언어를 해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몇 편 안 되는 자료이지만, 해독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적인 학문체계로 연구된 것은, 1900년대의 小倉進平에 의하여 해독된 것이 최초였다고 본다.²⁾ 우리나라의 固有한 노래가 日人學者의 손에 依해 解讀되었다. 수치심은 이루 形容할 수 없었음은 周知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固有한 生活 感情도 모르는 일인이 얼마나 誤讀이 많았으랴, 이에 분개를 느끼고 研究한 學者가 바로 梁柱東이다. 그래서 그는 大著 《古歌研究》를 저술해 내었다. 이후부터 鄉歌의 研究는 불을 뿜은 듯 380여편이 넘도록 研究되었다.

이렇게 많은 研究들은 거의가 語學的 研究가 主種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2) 徐映錫(1985): “新羅鄉歌의 難解語 研究”, 신라문화 2집, 東國大(1990): “新羅鄉歌 語釋의 問題點”, 신라문화 7집, 東國大
3) 小倉進平(1929): 「鄉歌 및 吏讀의 研究」(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紀要 第一).

音韻體系와 表記法體系 등을 올바로 세우려는 研究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研究들의 大部分이 너무나 一定하지 못하고 對立·多歧하여 어지러움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學者間에 解讀이 다른 것은 當時 우리말은 있는데 그 말을 表記해 줄 文字가 없어서 漢字를 借用하였다는 어려움도 있고, 몇 편 안 되는 作品數에 原因이 있다고는 하지만, 學者들 間에 고집스런 偏僻된 研究態度에도 그 原因이 있다고 보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勿論 우리의 文字가 없었던 當時의 言語들을 推理的 想像에 依한 解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主觀的인 我執에 依한 研究들이었다는 것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I. 先行 研究의 檢討

本考 安民歌에 對하여 解讀한 것을 보게 되면, 各 學者間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君隱’을 ‘님금은’(小倉) ‘님감안’(金善琪)으로 혼독하여 ‘君은’(梁柱東 등)으로 音讀한 說들과 反對가 되고 있다. ‘君’은 ‘님금, 님감’으로 訓讀할 수 있지만, ‘民, 民’은 우리말로 해독할만한 마땅한 語彙가 없음은 周知의 事實이다.⁴⁾ 만일 어거지로 있다하더라도 合當한 表現體系가 立證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訓主 音從型의 矛盾이 이에 立證되며, 이들 어휘는 音讀하는 것이 훨씬 合理的인 것이다.

‘父也’를 ‘아버요’(小倉), ‘아버여’(梁柱東·池憲英·金完鎭), ‘아버야’(徐在克), ‘아비라’(金善琪) 등 ‘也’를 ‘~요, ~여, ~야’ 등으로 해독하여 어지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父’를 ‘압’으로 보고, ‘母’를 ‘엇’으로 週及해 본다면 이는 ‘~야’로 해독함이 더욱 합리적이 아닐까 한다. 當時의 母音調和現象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

4)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現代文學 145호~250호, 1967~1975)에서 ‘아마난’과 ‘알까안’으로 해독하고 있으나, 이들 해독이 당시의 언어 현실에 맞는 것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일 當時의 言衆들이 이 말을 사용하였다면 그 흔적이라도 남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中병자료로서 재출되었어야 할 것이다.

겠지만, ‘압어’로 발음하기 보다는 ‘압야’로 發音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愛賜尸’은 ‘드스살’(小, 梁, 池), ‘드스실’(完), ‘드스살’(俊), ‘드스실’(徐), ‘다사살’(善)로 해독하여와 古代國語에서 ‘△’를 不定하는 說과, 그때도 단독 音素로 ‘△’이 存在했다는 說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가 古代國語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고 보는 說로 해독되어 있다. 그리고 當時 소위 半母音(半子音) ‘j’가 사용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問題로 삼고 있다. 筆者 小兒으로는 ‘ㅅ>△>ㅇ’와 ‘h>병>ㅅ/ㅈ’의 音韻變化를 인정하여 古代國語에서는 ‘△’와 ‘병’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說을 따르고자 한다.

‘犯尸恨’을 ‘미칠은’(小倉) ‘열흔’(梁), ‘알간’(善), ‘어릴흔’(完)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뜻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표현의 解讀에서만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 이다. 筆者는 梁柱東의 解讀을 따르고자 한다.

‘窟理叱’은 解讀에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며, 뜻도 奇奇妙妙한 풀이를 하고 있다. 筆者는 이 語彙를 풀이하기 爲하여 現地人들의 說問을 받고 조사한 바를 後說에서 論해 보고자 한다.

‘大扮’도 各양각색의 解讀이 있으나 後說에서 자세히 論하기로 하고, 다만 金完鎭의 ‘하늘’은 발전된 貴重한 解讀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生以支所音’도 해독자들에 따라 매우 多樣하다. 金完鎭의 ‘生以支=살이기’로 해독한 것은 별 무리는 없으나 너무 現代語에 가깝게 해독한 것이 잘 못되었다. 우리는 變변히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것은 15世紀語나 現代語에 가깝게 해독하는데 있다.

‘物生’도 解讀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衆生’의 뜻으로 일치되어 있으나, 金完鎭의 ‘~올신’의 해독은 특이하다.(후설 참조)

이 외에도 論難의 對象이 되는 부분이 많으나 後說로 미루기로 하고, 理解를

5) (小)는 小倉進平(1929): 「鄉歌 및 史讀의 研究」, (京城帝大法文學部紀要第一).
(梁)은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池)는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善)은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5호~250호), 1967~1975.
(徐)는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계명대 출판부).
(俊)은 金俊榮(1979): 「鄉歌文學」, (형설출판사).
(完)은 金完鎭(1983):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제 4판).

듬기위하여 安民歌 語釋의 主要 學者들의 解讀을 싱고자 한다.

君隱父也臣隱愛賜尸母史也

- 〈小〉 ①남금은 아비요 ②臣은 드스살 어머니
 〈梁〉 ①君은 어비여 ②臣은 드스살 어시여
 〈池〉 ①君은 어비여 ②臣은 드스살 어시여
 〈善〉 ①남감안 아비라 ②아마난 다사살 아시라
 〈徐〉 ①君은 아비아 ②臣은 드스살 어시야
 〈俊〉 ①君은 어비여 ②臣은 드스살 어시여
 〈完〉 ①君은 어비여 ②臣은 드스살 어시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 ③民은 밋칠은 으희(라)고 흐살디(면) ④民이 드스물 알고다
 ③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④民이 드술 알고다
 ③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④民이 드술 알고다
 ③알까 안알까 아까고 까살디 ④알까 이다살 알고다
 ③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④民이 드술 디고다
 ③민언 얼흔 아히고 흐살디 ④민이 드술 디고다
 ③民은 어릴흔 아히고 ④흐살리 민이 드술 알고다

窟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此盼喚惡支治良羅

- ⑤굴人 델 생으로 쫄바인 物生 ⑥이롤 먹어 다스리라
 ⑤구물人 다히 살손 物生 ⑥이홀 머기 다스라
 ③구술 느잇늘는 이홀 괴웃 다스라
 ⑤구림 간갈 나리디숨 물생 ⑥이갈 막압 까다사라라
 ④구릿 대홀 내히숨 물생 이홀 좌히 다술아라
 ⑤구무릿 디홀 사닐손 物生 ⑥이홀 먹얏 다술아라
 ⑤구릿 하늘 살이기 바라뎡썌 ⑥이롤 치악 다스릴러라

此地盼捨遺只於是去於丁爲尸知國惡支 持以支知古如

- ⑦이짜홀 버리고 어되 가는뎡 ⑧홀 나라해 다녀 쫄고다
 ⑦이짜홀 버리꼭 어되 갈더 홀디 ⑧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④이짜홀 버리고야 어되 가려(려) 홀디 나라웃 디니사 말고다

- ⑦이싸깬 바리곡 오돌이 가오댕 깎디 ⑧나라굳이 디니디 알고다
 ⑤이싸홀 브리격 어드리 가는뎡 ⑥홀디 나리히 다니히 디고다
 ⑦이싸홀 브리곡 어돌이 너더 홀디 ⑧나라살 다닐 디고다
 ⑦이싸홀 브리곡 어드리 가늘더 ⑧홀디 나락 디니기 알고다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戶等焉國惡太平根音叱如

- ⑨後句 님금이다 ㅁ이다 민이다 홀든 ⑩나라해 太平(이)하와이
 다
 ⑨아으 君다이 ㅁ다이 민다이 홀늘든 ⑩나라악 太平홀니었다
 아으 ⑤꺄다이 ㅁ다스 민온다이 홀늘뜰 나라 太平하리사다
 ⑨님감 답이 아마까 디일간답이 ⑩까날딸안 나라 태땡감니다
 ⑨아으 ⑦꺄곤 ㅁ다히 민곤 홀늘든 나라 太平홀짜
 ⑨後句 君다비 ㅁ달 ㅁ다비 홀늘든 ⑩나락 太平홀짜
 ⑨아야 꺄다 ㅁ다히 민다 ⑩홀늘든 나락 太平홀눔짜6)

III. 解讀의 實際

1. 君隱父也

小倉進平은 ‘君은’을 ‘님금은’이라 解讀했지만, 뒤에 連結되는 ‘ㅁ’과 ‘민’을 音讀한 것으로 보아, 이도 역시 ‘君’이라 音讀했음이 틀림없으리라 믿는다. 金善琪는 ‘님감안’으로 보아 ‘隱’을 陽性母音調和에 依한 ‘안’으로 解讀했음이 특색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틀림 없이 全音借로 보아 ‘은’으로 해독해야 옳을 줄로 안다.

그리고, 古代國語의 國名·地名에서 보면, ‘君’이 ‘koma’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님금’이나 ‘님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7) 만일 ‘君’이 아니면 ‘곰’, ‘금’으로 부르다가 後代에 와서 派生接頭辭 ‘님’이 붙어 ‘主’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父也’를 ‘아미요’(小), ‘어비여’(梁), ‘아비여’(完·俊), ‘아비야’(徐), ‘아비라’(善)

6) 팔호안의 번호는 句體를 나타내고, 小·梁……등의 약칭은 註 5번을 참조하기 바람.

7) 李炳鏡(1982):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형설출판사), p.126~143.

등으로 解讀하여 각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父’는 ‘압’의 脈生語 ‘아비’가 尙當한 해독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勿論 古代國語에서 ‘업’으로 再構할 수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母史也’의 對應關係에서 볼 때 母音의 사용으로 보아 ‘압’이 더 陰·陽의 妙한 맛을 나타내므로 ‘압>아비’로 불렀음이 合理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의 두드러진 이유는 ‘母史’를 ‘잇’으로 再構하기 때문이다.

‘也’는 ‘야’로 해독함이 옳을 것 같다. ‘父’를 ‘압’으로 본다면, 陽性母音에 어울리는 ‘압야’로 再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母音調和 현상이 存在했는지는 의문이나, 語感上 頭音에 ‘아~’가 쓰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聲調의 律格美는 마찬가지로 아니었나 한다. 原本이 感歎呼格 ‘야’는 ‘여’나 ‘야’로 恣意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常例인 것이다. 따라서, ‘母史也’에 있어서는 ‘也’가 ‘여’로 陰性을 택한다. 그래서, ‘압야>아비야’와 ‘엇여>어시여’로 해독함이 가장 合理的인 것이 될 것이다.⁸⁾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이 感歎呼格助詞가 副詞形 내지는 指定形(說明形)으로 쓰여 여기에서도 ‘~와 같고’로 現代譯할 수 있다. 이런 論理로 볼 때 더욱 一字一音主義에서 벗어나 해독할 수밖에 없는 語彙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2. 臣隱愛賜尸母史也

‘臣隱’에서 ‘隱’을 ‘은’(小)으로 보기에 더욱 힘들다. ‘·’자가 당시에 存在했는지는 確實히 모르겠으나, 앞의 같은 ‘隱’字의 音讀이 ‘은’이었다면 한 가지로 語釋해야 合理的인 것이다. ‘臣’할 때 ‘ㅣ’ 母音이 中性母音이기 때문에 陽·陰性母音을 自由로히 取할 수 있기 때문에 ‘은’보다는 ‘은’으로 해독했음이 더욱 合理的인 일 것이다.

‘愛史尸’의 解讀도 ‘드스살’(小·梁·池), ‘다사살’(善), ‘드스살’(徐), ‘드스살’(俊), ‘드스살’(完) 등 다양하다. 意味內容은 同一하나, 當時의 現實音으로 ‘△’이 적어도 9世紀前으로 溯及해 볼 때 이 글자가 쓰였느냐 하는 의문이 提起된다.

8) 崔範勳(1981): 「韓國學叢書」(二友出版社), p.92~97.

金俊榮: 앞든 책, p.88. 慕竹郎歌의 ‘郎也’로 解讀했음이 특기할 만하다. 古代國語地名에도 대개는 ‘야’로 쓰였고, 앞 音節의 받침 有無에 따라 ‘아’나 ‘야’로 쓰였음을 상기할 것이다.

15世紀에는 /s/와 /z/가 각각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z/는 /s/의 變異音으로 쓰이다가 時間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단독 音素로 定着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唐詩의 音素의 數는 15世紀 國語에서 보다 매우 단순했으리라 볼 때 ‘△’音은 쓰이지 않았으리라 推測된다.

이런 見解는 有聲音 사이에서의 弱化現象으로 ‘ㅅ>△>ㅇ’으리라 하는 것이 推測된다. 이러한 變化過程은 ‘ㅂ’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漢字音에 있어서는 ‘△’音이 存在했는지 모르겠다.⁹⁾ 그러나, ‘△’音은 ‘ㅅ’音의 弱化現象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ㅅ’음은 氣가 수반된 음이기 때문에 弱化로 보기가 어렵다.

이 音의 變化의 時期는 13世紀 以後 15世紀以前이라 보기 때문에 ‘ㅅ’音의 實際 우리말 표기는 이때일 것이라 본다.¹⁰⁾

‘賜尸’은 ‘살’이나 ‘실’이냐가 問題인데 ‘賜’가 ‘샤’로 全音借된 것으로 解讀해야지 ‘시’는 中世 以後 現代語에 너무나 치우친 것 같다. 朝鮮初期語에도 ‘샤’의 形態는 많이 나온다. ‘낙샤’(용가, 1), ‘지스샤’(訓正)과 같이 ‘시’의 古形은 아무래도 ‘샤’인 것이 尙當하다.

‘尸’의 ‘ㄹ’은 許多하게 鄉歌에 表記되었지만, 이 ‘주검 시’ 字가 어찌 ‘ㄹ’로 표현되었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金俊榮에 依하면, 終聲 ‘ㄹ’을 發音할 때 ‘입 11’에 혀가 뒤로 올라가 구부러진 모양을 본떠 ‘尸’자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재미있는 說이 있다.¹¹⁾ 여기에서의 ‘ㄹ’는 未來冠形詞形語尾로 쓰인 것이 아니라, 現在形을 나타내는 ‘~는’으로 表現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表現 現象은 鮮初文獻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다리에 떠덜(떨어지는) 므롤(용가, 87) 도라 옴(오는) 길혜 쇼 칠(치는) 아힐
보시니(월인, 245) 高山이라 흘(하는) 뉘해서(월석, 27)

등 허다하게 많다. 따라서, 이 語節은 ‘사랑하시는’의 뜻으로 解讀해야 한다. ‘母史也’는 ‘엇여>어시여’로 보는 데는 別問題가 없으나 古代語에서 ‘엇>어

9) 南廣祐(1982): 「國語學論文集」(一 潮閣)(重版), p.85~99.
10) 李基文(1982): 「國語音韻史研究」(塔出版社)(四版), p.38.
11) 金俊榮: 앞든 책, p.62.

서'로 해독한다면 '△'음의 存在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음의 實際를 거부한다면, 이도 '엇>어시'로 보아야 합당한 것이다. '也'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로 봄이 순리적이다. 따라서, '어시여'로 해독함이 타당할 것 같다.

3. 民焉狂尸恨阿孩爲古陽尸知

'民焉'의 '民'은 全音借로 共通된 見解이고, '焉'의 해독은 '은'(池·徐) '안'(善), '언'(俊), '은'(小·梁·完)으로 解讀하고 있다. '隱'의 해독에서와 같이 '은'으로 해독함은 잘못된 것 같다. 當時 言衆들이나 표현자가 '은'으로 소리냈다면 '隱'字로 표현하지 어찌서 '焉'字를 使用했느냐가 의문이 간다. 이는 分明히 '은'과 '은'을 區別하기 위해서 '焉'字로 表現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當時 現實音으로 '·'音素가 分明히 存在했음을 이로서 알 수 있고, 陽性과 陰性的의 '은/은'을 區別 表記했음을 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焉'은 '안'도 아니오, '언'도 아닌, '은'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狂尸恨'의 解讀은 意味는 거의 비슷하지만 語法的 差이를 보인다. '밋칠은'(小), '얼흔'(梁·池·徐·俊), '알간'(善), '어럴흔'(完)으로 그 속 뜻은 비슷하다. 現代語 '미치다'와 '어리다'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古代語에 올라가면 '狂, 愚, 癡, 迷' 등의 뜻은 엇비슷하므로 '어리석은'의 意味로 쓰이지만, '어럴흔' 보다는 '얼흔'이 더 合當한 解讀이라 본다. 現代語에서도 '얼얼하다' '얼되다' 등으로 '~하다'와 '~되다'를 名詞가 아니라도 接辭로 붙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古代語에서도 '얼흔'형이 있을 법도 하다.

'阿孩古'는 別 異說이 없는 것으로 보나 '으헝(라)고'(小)의 '으~'는 理解가 가지 않는다. 어찌 '아~'가 '으~'로 解讀되었는지 더욱 모르겠다. '아까고'(善)는 더욱 特異한 해독이지만 理解가 가지 않는다. '고'를 '~인고'의 感歎的 性格으로 풀이할 수 없고,¹²⁾ 다만 '~이라고'의 풀이로 '~이~' 밑에 '이'가 축약된 形인 바, '~라고'는 敘述形 밑에 붙는 副詞形語尾라고 풀이하여 '~라고'로 보는 것이

12) 金俊榮: 앞든 책, p.103.

梁柱東: 앞든 책, p.262~264.

올바른 解讀이라 본다.¹³⁾ 添言할 것은 鮮初文獻에서는 ‘이’ 母音下에서는 ‘고’가 ‘오’로 ‘ㄱ’탈락(목음)화 현상이 생겼지만, 古代國語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본다.

‘爲腸尸知’는 대체로 見解의 一致를 보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샤’와 ‘시’의 差異와, ‘지’의 ‘디’는 어떤 條件이나 說明을 나타내는 語形으로서 原始抽象名詞 ‘드’에 說明形 ‘이’가 붙어 ‘디’가 된 것이다.¹⁴⁾ 따라서, ‘디’는 어떤 條件이나 理由를 나타내는 語形 ‘것이면’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어떤 단순한 副詞形語尾나 理由를 나타내는 通史構造로 본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句節과 連結이 되지 않는다. 만일, 連結이 된다고 할지라도 意吹가 全然 틀려진다. “임금이나 신하가 백성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意味로 쓰인 것이지, 이와는 反對로 “백성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意味로 쓰인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爲腸尸知’는 ‘호살디’ 즉 ‘하실 것이면’으로 解讀해야 한다.

4. 民是愛尸知古如

‘民是’의 解讀은 ‘민이’로서 各 學者間에 統一된 意見이나, ‘~이’를 主格으로 보느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를 主格으로 보게 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愛尸’를 目的語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보면 앞뒤 文章이 連結되지 않는 關係로 “백성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作品의 作者가 王에게 말하려는 意圖가 全然 旣 意味로 傳達되게 되므로 이는 分明히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意味로 쓰여졌다고 본다면, ‘~이’는 目的語로 쓰였음이 確實한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5句를 보아도 그렇다. 鮮初 文獻에도 目的格助詞가 ‘~이’로 쓰였음을 흔히 볼 수 있다.

- ① 아끼 일흠을 아들이 나거나 풀이 나거나 잇데허리잇가(월인, 234)
- ② 드슬 가져 아롬 기드료디 몰허리거(몽연, 14)
- ③ ㄱ르치디 아니호디 몰허리라(내훈초간, 서, 6)

13) 그러나 ‘根古(稽千手觀音歌)’에서의 ‘古’는 感歎形終結語尾로 쓰였다. 連結語尾에서는 非感歎의 性格을 띠고 표현된 것이다. 이 ‘古’는 ‘道’와 同 하게 사용되었다.

14) 梁柱東: 앞둔 책, p.164,265.

④ 孝子 쥬규미 몬훤리라(삼강, 孝, 20)

以上的 例에서 보면 ①의 “아들이 나가나 쏘이 나가나”는 出席에 關한 이야기로 “아들을, 딸을”로 ‘~이’는 分明히 目的格助詞의 機能을 나타내며, ②의 ‘기드료미’는 ‘기다림을’, ③의 ‘아니호미’도 ‘아니함을’, ④의 ‘쥬규미’도 ‘죽음을’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古代國語에서도 目的語 ‘~을’은 ‘~이’로 많이 쓰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民是’는 ‘民을’로 現代譯 할 수 있겠다.

‘愛尸知古如’는 ‘드술디고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小倉의 ‘드스몰’은 ‘말’의 解讀이 難解하고, ‘드술알고다’(梁·完·池)는 ‘드술’을 ‘사랑을’로 풀이한다면 目的語가 되고, ‘지’는 ‘~알’로 訓讀하여 앞에서 ‘知’를 音讀하고 뒤에서 訓讀한다는 것은 一音一字解讀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文脈이 서로 連結되지 않고 意味가 不連貫해진다. 무엇보다도 作者의 意志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古如’는 感歎終結語尾 ‘~고다’로 解讀하여 ‘~고라’形과 같은 語辭로 본다. ‘ㄷ~ㄹ’은 서로 音轉하여 쓰인 것인데 鮮初 文獻에서나 現代語에서도 이런 音轉關係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鄉歌에서도 ‘是如: 이다~이라’, ‘是如乎: 이다온~이 라온’, ‘爲是如: ㅎ이다~흠이다~함이라’ 등의 表現이 이를 證明해 준다. 이 ‘~고다’형의 ‘~고라’는 鮮初 文獻에서는 ‘~오라’형으로 ‘ㄷ, ㄹ’ 밑에서 ‘ㄱ’탈락(목 음)되는 것인데 古代國語에서는 그대로 維持되었다. 따라서, 이 語節은 ‘사랑할지 라’로 解讀하는 것이 適當하다.

5.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窟理叱大盼’의 解讀은 本歌中 가장 難解한 語節이다. 各 學者들의 解讀도 奇奇怪怪하게 다르다. 小倉은 ‘굴스델’이라 解讀하여 ‘樞機’를 나타낸 말이라 하였고, 梁柱東은 ‘구물스다히’라 하여 ‘꾸물거리미’로 池憲英은 ‘구술느’로서 ‘神機’이라 했는가 하면, 심지어 金善琪는 ‘구릴깎갈’이라하여 ‘똥자루 큰 것’이라

15) 金俊榮: 앞든 책, p.103.

하였고, 金完鎮은 ‘구릿하늘’이라 하여 ‘人衆’의 뜻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徐在克·金俊榮은 梁柱東과 解讀의 語法上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속 뜻은 同一하다.

우선 ‘窟理’에 對하여 論해 보고자 한다. 筆者는 이 노래의 發祥地인 慶州地方에 수 년간 살아오면서 이 말의 뜻을 알아 보고자 努力하였다. 비교적 年歲가 많은 現地人들, 特히 代代로 그곳에 살아 오는 人들에 묻기도 하고, 學生들의 도움을 받아 說問紙를 만들어 돌리기도 하였다. 說問紙에 나타난 20餘名의 答을 보게 되면, ‘窟理’는 “텅빈 배, 허기진 배, 굶주린 배” 를 말하고 있음이 確實히 證明되었다.¹⁶⁾ 特히 이 語彙는 庶民層 人들이 많이 쓴 것으로 보아 下層階級の 言語임이 틀림 없다. 當時 上層階級の 兩班들이야 배 굶을 일도 없고, 죽지 못해 살아 가는 굶주린 백성들의 苦衷을 알 수 있었으랴. 그래서 이 作者는 王에게 이러한 말을 써서 일깨워 주려고 한 것 같다.

지금도 우리는 아랫사람을 깔보고 하는 말 중에 “뱃구리가 덜 차서 그러느냐” 등의 말을 가끔 듣게 된다.

‘굴리’는 분명히 음차로서, 처음에는 ‘혈, 공, 기, 곡, 동, 통’의 의훈으로 속이 텅 빈 ‘구멍(구멍), 꿀, 굴’ 등의 뜻으로 내허의 의미를 지닌 말로 ‘굴’에 파생접미사 ‘리’가 붙어 ‘굴리=구리’로 표기되었음이 틀림 없다.

窟은 굶기라(月釋序 21)

道理人 굴글 ㄹ다다마(月釋序 21)

16)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람이나 짐승의 ‘배’를 지금도 ‘구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보통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을 ‘구리’ 큰 놈이라 하고 있습니까? ③배 큰 짐승을 ‘구리’ 큰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④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욕하고 흉보는 말로 ‘구리’ 큰 놈이라 하고 있습니까? 의 물음에 대하여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두 사람만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說問은 李敎相(60歲), 농업·경주시 울동 952번지 외 19명인데 연령이 높은 분은 비교적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으며 약사나 교직자 등 학력이 높은 두 분이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으로 보면 외지에 오래 살던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조사는 동국대 인문대 국문과 졸업생 姜惠卿양이 수고해 주었다. 이 조사는 1985년 이전에 실시되었음을 밝혀둔다.

바궘를 시는 궘기 드러이셔(釋譜 13:10)

궘기 아니 뵘시며(月釋 2:56)

어지러운 궘기셔(杜初 1:4)

구무 바궘(龍歌 3:13)

구무마다 放光ᄒ사(釋譜 11:1)

들워 저근 구무 밍ᄒ로메(楞解 2:43)

구무 이실 썩ᄒ마라(楞解 4:110)

버피 구무 우희가 머물오(杜初 9:16)

이상의 例에서 보듯이 선초 문헌에 ‘궘·구무’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구멍’을 말하는 ‘窟’ 등의 音訓인 것이다. ‘구멍·구녕·구들·구불·구비·굴’ 등의 原形은 ‘kup/kop’의 同根派生語로 보는 見解도 있다.¹⁷⁾

그러면, 이 ‘窟理=구리’가 언제부터 ‘빱·배·빱뽕·배뽕·빱좁’ 등으로 바뀌었나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文獻에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確實하지 않으나, 鮮初 文獻에 거의가 ‘빱’로 나타나고 있다.

腹은 빱라(楞解 9:64)

빱골뽕과 목뽕롬과(月釋 2:42)

주린 매 고기를 빱브르 먹디(杜初 22:29)

그러나, ‘빱’의 以前形은 ‘*빱뽕’ 형이 아닌가 한다. ‘궘/궘(kop/kup)’形은 ‘궘/굴’로 對應을 이룰 수 있다. ‘~p : ~l’의 末音 對應이 古代 韓國語에 나타나고 있으니, ‘kapel(郡)’이 中世語에 와서 ‘keβel’로 다시 이 말이 ‘kol(마을)’로 變化하였다. 이런 現象으로 보면 ‘궘(谷·洞·郡·穴·窟)’ 등이 原始 韓國語에서는 ‘*kep’

17) 李男德(1983): 「한국어 어원 연구」(이화여대 출판부), pp.153~158.

이었고, 공통조어에서는 *kol'이있음이 滿蒙語의 對應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¹⁸⁾

그러면, '빚곰'의 語形을 分析해 보자, 여태까지의 研究로는 '의 音韻倒置 現象으로 研究되어 왔으나, '빚곰'과 '빚복'은 뜻이 다르다.

'빚곰'은 '곰(복)'라는 語根에 派生接辭 '빚~'가 合成된 말이다. '빚'는 아마 '가운데'의 뜻이 派生的으로 語根이 變化하여 脫落되고 오히려 接辭인 '빚'만이 남아 지금 傳하고 있는 말이라 볼 수 있다. 語根이 떨어져 나가는 例는 極히 드물지만 이런 現象은 特異한 語形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한다. 여태까지 研究들은 '빚곰'은 '빚+곰'의 合成名詞로 보고 있으나 이 연구들은 잘못이 아닌가 한다.

*골/굴(굴)>곰/굽(굽)>빚곰>배곰의 變化와 함께 현대어의 意味로는 '배에 붙은 태점'으로 變化된 말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굴>*곰>빚>배의 進化言語學的인 側面으로 볼 수 있겠다.

'빚복'은 '빚곰'과는 달리 '배의 봉오리'의 意味를 나타낸 말로서 '빚곰'과는 同義語가 아니다. '~복'은 '보록'의 준말이 아닌가 한다. '보록'이나 '보롱'은 같은 어휘로서 '빚곰'이란 單語가 나온지 한참 후에 나온 말이 아닐 수 없으며, '보롱'의 준말이 '봉'이라 본다면 '~오리'는 역시 派生接辭로 名詞에 붙어 語感을 독특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強音化 現象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의 研究로는 '곰'이 '복'의 '비'과 '기' 音韻倒置 現象으로 보고자 한 것은 크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¹⁹⁾

그리고, 앞서 말한 '복'과 '봉'은 子音同化에 따라 'K~ŋ'으로 우리 韓國語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朴詩諺解 初刊本에는 '비보게 불브터(燃燄)'로 나오고, 重刊本에는 '빚봉에불브터'라 나온다. 이들의 時間的 差異는 約 150년에 걸친 變化인데 만일, 音韻의 倒置 現象이 일어 났다면 '빚곰'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音韻倒置 現象으로 바뀐 말들은 다시 正置 現象으로 바뀐 事例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개의 語彙는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빚곰'이란 말에서 '곰'의 語根이 없어진 다음 생겨난 語彙라고 말하고 싶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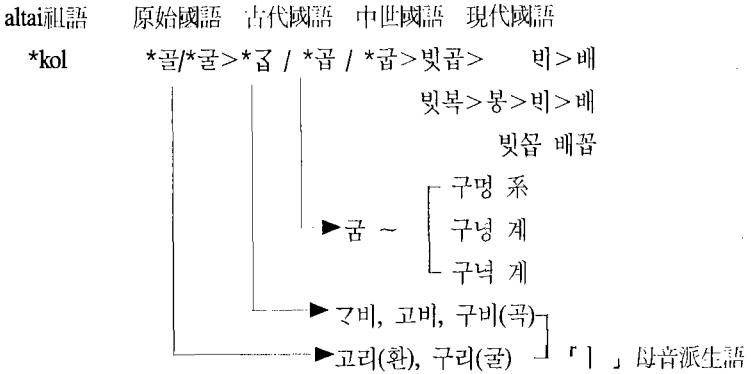
18) 李男德: 앞든 책, pp.248~302.

19) 李男德: 앞 든책, pp.113~114에서 '빚'를 중세국어보다 더 올라 가면 *비리(비라기)형이 아닌가 했는 데 아무리 현대어에서 생선의 복부를 '배래~배래기'라 하더라도 '도베떼기~베떼기'와 같은 말로 't~r'의 音轉현상이지 '비리'로 소급할 수는 없다.

20) 李男德: 앞든 책, p.130에서도 '~복'과 '~봉'은 같은 意味로 쓰였다고 하였으며, '빚곰'

以上에서 말한 바를 간추린다면, ‘*kol/*kul(*kol/*kul)’이 名詞形成接辭 ‘이’가 붙어 ‘*고리/*구리’가 된 것이다. 이 名詞形成接辭 ‘이’가 붙기 시작한 것은 아마 古代 國語에서부터가 아닌가 한다. ‘굽/곶/꺾(*kep/*kop/*kup)’도 altai 共通祖語에서는 ‘*kol/*kul’과 같으나, ‘이’의 派生接辭가 붙어 ‘ᄃ비/고비/구비(曲)’의 意味變化를 한 것이다. ‘곶~’형도 祖語에서는 ‘*kol/*kul’과 같으나, ‘~əŋ/~jəŋ/~ŋ’이 붙어 方言에서 세 가지 形으로 變化하여 ‘구멍 — 구막/구녕 — 구녕/궁 — 궁강 궁개 — 궁경 — 궁갱이 — 궁개 — 궁기’ 등으로 變하여 中世國語에서는 ‘구무/곶’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全部 ‘窟·穴·孔·洞……’의 音·訓으로 歸結된다.²¹⁾



특히 놀라운 것은 鮮初 文獻에도 이 ‘구리’라는 말이 쓰인 데가 한 군데 나온다.²²⁾

은 ‘비구멍’, ‘빋복’은 알맹이가 찬 球體와 같은 圓形物을 생각하여 兩形이 意味的 區別을 하였다고 보았다.

21) 李男德: 앞든 책, pp.47,139~142.

22) 면밀히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實用例로 보아 한 군데 ‘구리’와 ‘비’가 한꺼번에 쓰인 것은 15C에도 ‘구리’가 쓰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구리’가 ‘腹’의 意味로 쓰인 것이냐 ‘먹은 음식’의 뜻으로 쓰인 것이냐의 해석 차이가 있겠으나, 筆者의 見解로는 ‘腹’을 지칭함이 틀림 없다고 본다.

또 구리 토반 거시 비술홀 싸허며(月釋 21:43)

이 資料는 실로 놀라운 發見이 아닐 수 없다. 鮮初 文獻에 쓰인 것으로 보면 分明히 ‘구리’와 ‘비’가 함께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이를 더욱 證明해 주는 實例로는 現在 濟州道 全地域에서 使用되고 있는 ‘구리다’란 말이다. 筆者가 直接 듣고 調査한 바로는 ‘배가 몹시 허기진 상태’나 ‘속이 텅 비어 몹시 배고픈 상태’와 ‘속이 비어 들 떠 있는 상태’를 指稱하는 말로 調査되었다.²³⁾

現代語에서 ‘굽~’의 語源도 아마 이 ‘窟’ 등의 義訓으로 보고 싶다. 이로써 ‘窟理’는 ‘구리(窟)가 틀림 없다.

‘大盼’의 ‘大’는 ‘크’의 訓借로서 ‘하’와 비슷한 意味를 나타내는데, 이 ‘大’는 ‘泰, 干, 韓, 翰’ 등과 함께 古代國語 國名·地名·人名 등에 두루 借用 表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居世平, 麻立干, 伊伐干, 烏干’ 등의 尊者를 뜻하는 ‘干’字는 다 이들 글자와 同一하며, 音韻의 形態도 全部 同一한 語形이라 볼 수 있다. ‘大, 泰’의 解讀은 ‘그(크)’와 ‘근(큰)/글(쿨)’과 같으며, ‘韓, 翰’도 ‘一, 多, 大’의 뜻으로 ‘한’으로 解讀된다. 이 ‘한’의 古代音은 ‘K-’의 頭音을 가진 ‘kan’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大’字의 ‘근’은 ‘간’으로 音轉되어 함께 ‘kan’의 語彙를 상징할 수 있다.

이들의 音은 ‘n~’의 音韻變動으로 ‘kara’(城邑)으로 變하였다.²⁴⁾ 그러나, 이 ‘한’은 ‘大’의 意味와는 달리 ‘多’의 뜻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낸다고 볼 때, 이를 ‘한을=하늘’로 解讀하기에는 意味가 不充分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有氣音 ‘크’이 現實音으로 使用되었느냐가 問題인데, 古代國語에 有氣音은 이상하게도 硬音보다 오히려 일찍 發達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²⁵⁾ 鮮初 文獻에 ‘칼’(刀)을 ‘갈’, ‘코’(鼻)를 ‘고’로 表現했다 하여 古代國語에서 이 有氣音인 次清系音을 부정

23) 玄平孝(1962): 「濟州道方言研究」(제1집 자료편), (精研社).를 보게되면 ‘구리다’란 말이 濟州 全地域에서 使用되고 있는데, 이 말은 形容詞로 “속이 들떠서 비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이를 證明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窟理’는 ‘텅빈 배, 허기진 배, 굶주린 배’ 등의 뜻으로 使用되었음이 틀림 없는 事實이다.

24) 李炳鈺: 앞든 책, p.61~67.

25) 李基文: 앞든 책, p.88~91.

李基文(1967): 「國語史概說」(民衆書館).

하는 면과 漢字音研究에서 中國音 次清이 東音(우리 나라의 전통적 한자음)이 不規則하게 반영되었다는 理由로 사용 여부에 對하여 疑問을 提起하는 說이 있다.²⁶⁾ 그러나, 쓰인데가 극소수이긴 하지만, ‘크’가 ‘夫, 快, 馱, 喻’ 등에 쓰이고 있음을 볼 때, 當時 ‘크’를 現實音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鄉歌 禱千手觀音歌에 ‘根古’를 梁柱東·金完鎭이 ‘큰고’로 解讀하여 ‘크’가 古代國語에서 存在했음을 認定하고 있다.²⁷⁾ 이런 說들은 올바른 見解라 보지 않을 수 없다.

‘盼’은 ‘ㅎ’曲用의 目的格助詞 ‘홀/홀’로 많이 解讀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크’에 연결된 ‘ㄹ’로 보고자 한다. 이는 ‘尸, 乙’ 등과 같이 쓰인 略音借 ‘ㄹ’로 解讀하여 ‘大盼’을 ‘글/클’로 해독함이 適當할 것 같다.²⁸⁾ 古代地名에서도 이와 同一하게 쓰인 用例가 나온다. “大山群本百濟大尸山郡景德王改名今秦山郡”(史記, 地理3·大山) 이를 보면, ‘大尸’가 분명히 ‘글/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資料는 ‘大盼’을 같은 表現體系인 ‘글/클’로 解讀할 수 있는 좋은 證據가 된다. 이때의 ‘ㄹ’은 未來冠形詞形語尾가 아니라, 現在時制를 나타내는 副詞形語尾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窟理叱大盼’은 ‘구리가 크게(굵주린) 배가 크게’로 解讀하는 바이다.

‘生以支所音物生’의 解讀을 보면, 가지각색이다. ‘生으로 낄 바인 物生’(小), ‘살 손物生’(梁), ‘늑잇실들늑’(池), ‘나리디솨 물生’(善), ‘내히술 물生’(徐), ‘사닌손 物生’(俊), ‘살이가 바라물씨’(完) 이들 解讀中에 가장 合理的인 것은 梁柱東의 것이다. 金完鎭의 解讀을 보면, ‘生以支’의 解讀은 이해가 가나 ‘物生’에서 막히게 된다. 어떻게 ‘物生’이 理由를 나타내는 語尾‘~을시’(씨)로 解讀할 수 있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아마 앞의 ‘窟理叱大盼’을 ‘大衆을’이라고 해독한 연유일 것이다.

26)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高大出版部).

27) 梁柱東: 앞든 책, p.484~486. 金完鎭: 앞든 책, 그러나, ‘根古’를 ‘큰고’로 解讀함은 ‘根’을 ‘근>큰’으로 해독하여 ‘~크고’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크고’形이 더욱 合理的인 것 같다. ‘~크고’形은 未來感歎終結語尾의 意味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고’로 해독해야 脈絡의 意味上 맞는 것 같다.

28) 周法高 外(1973): 「漢字古今音變」(香港: 中文大學)에 의하면 ‘盼’의 上古音과 中古音이 ‘xiet/xiet’이라 再構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 音이 東音으로는 ‘힐’이 되어 ‘히’의 略音借로 보아 ‘크히’로 해독해 梁柱東과 같이 ‘히’를 부사형어미로 보려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資料가 없어 假定에 그치고 말았음을 말해 둔다.

이 語節의 解讀은 ‘살 손 物生’으로 現代譯한다면 ‘사는 바 衆生’으로 보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본다.

6. 此盼喰惡支治良羅

‘此盼’은 ‘이롤’(小), ‘이홀’(梁), ‘이를’(完) 등의 解讀中 ‘盼’을 ‘롤’이나 ‘를’로 봄에는 異說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롤/를’로 解讀함에는 陽·陰性母音의 差異 뿐인데 鮮初 文獻에 보면 ‘ㄹ’母音下에서는 陰陽을 自由로히 取할 수 있음은 周知의 일이다. 그런데 ‘ㅎ’ 介入을 認定하지 않는 關係로 ‘홀’이나 ‘홀’을 그렇게 해독할 수 있다면 ‘地盼, 二盼, 吾盼’ 등도 ‘롤’이나 ‘를’로 解讀할 수 밖에 없다는 意味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乙’字等을 借用할 것이지 ‘盼’字를 使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古代國語에서도 ‘ㅎ’曲用語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梁柱東과 같이 ‘이홀’로 解讀하고자 한다.²⁹⁾

‘喰惡支’의 解讀은 ‘먹어’(小), ‘머기’(梁), ‘괴웃’(池), ‘좌히’(俊), ‘치약’(完) 등이 있으나, 筆者는 ‘喰惡’을 ‘먹약’으로 解讀하고자 한다. ‘喰’은 ‘飮’의 烏倣로 일단 보고 이를 訓讀 ‘먹’으로, ‘惡’을 全音借 ‘약’으로 解讀하여 ‘먹약’의 強勢接尾辭 ‘ㄱ’이 添加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飮’을 ‘치’로 訓讀하여 ‘치먹다’의 ‘치’로 보아 이를 ‘養, 牧’의 뜻으로 본 것은 意味가 通하지 않는 것 같다. ‘척’은 ‘치어’의 準말로서 ‘기른다’의 뜻으로 본다면, ‘먹이는 것’과는 意味가 다르다. 만일 ‘養, 牧’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앞뒤의 脈絡이 通하지 않는다고 본다.

‘支’字는 虛字로 봄이 마땅하다. ‘支’을 ‘支’로 보아 ‘기’로 解讀함도 無理이고, ‘飮’을 指示한 말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此盼’은 ‘物生’의 指示語로 보고 ‘喰惡’은 ‘먹여’의 힘춤말로 보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治良羅’은 訓讀 ‘다스리~’이나 ‘다슬~’이 原則이다. 古代國語에서 ‘~이~’의 被使動이 不分明할 때이므로 ‘治’의 原形을 ‘다슬’로 보는 梁柱東의 說이 옳은 것 같다. ‘良’은 略音借 ‘라’로 보고 ‘라’는 全音借 ‘라’로 보아 ‘다슬라라’로 解讀하고자 한다. ‘~라라’는 命令形도 아니요 請誘形도 아닌 歌意를 부드럽게 나타내는 感歎副詞形 終結語尾로 봄이 가장 合理的인 解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이 句를

29) 南廣祐(1982): 「國語學論文集」(一潮閣)(重版), p.183~220.

지금말로 풀이한다면, “이를 먹여 다스려!” 로 직역할 수 있다.³⁰⁾ 添言할 것은, 그럼 왜 作者가 이렇게 感歎形을 썼는가 하면, 當時에 백성의 糊口之策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社會的으로 混亂하고 굶주리는 백성과 도적들의 橫行으로 착하고 어린 백성이 우선 ‘구리(腹)’을 채울 일이 큰 問題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작자는 이를 간절히 泣訴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³¹⁾

7.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丁爲尸知

‘此地盼’은 大概 ‘이싸홀’로 解讀하여 異論이 없으나, 金俊榮은 ‘이싸홀’로 보아 ‘나’와 ‘·’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와 ‘一’의 差異를 나타내 古代國語에서 母音調和現象을 認定하려 하지 않았다.

母音調和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見解에는 수긍이 가나, ‘싸’가 ‘싸’로 되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現在 ‘·’發音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濟州에서도 ‘쌍’을 ‘땅’이라 하지 ‘쌍’이라 發音하지 않는다.

‘此地’는 訓借로 봄이 마땅하고 ‘盼’은 全音借로 보아 當然히 ‘이싸홀’로 解讀함이 옳을 것 같다.

‘捨遺只’의 解讀을, ‘버리고’(小), ‘버리고야’(池), ‘바리곡’(梁·完·俊·善), ‘버리격’(徐) 등으로 하였는데, 이 중 筆者의 見解로는 ‘바리곡’이 가장 適當한 解讀이라 본다. 왜냐하면, ‘捨’의 訓讀은 ‘버리~’도 아니고, ‘바리~’도 아니다. 當時 ‘·’가 分明히 現實的으로 存在했다면 ‘버리~’가 맞는 것이다. 唇音之下에 ‘·’는 ‘고’와 비슷하게 發音되었으리라는 것은 正한 理致이기 때문이며, ‘遺’의 略音借 ‘고’에 強勢添尾語 ‘只’의 ‘기’가 連接된 것이라 봄이 當然하다. 그런데 이 ‘只’가 어찌 ‘기’으로 終聲에 使用되었는지는 確實히 論及할 수 없으나, 一說에 依하면 ‘기’를 發音할 때 入口(口)字 밑에 입을 벌린 모양을 본 떠 造字된 것이라고 보는 學者가 있다.³²⁾

30) 만일, ‘~라’가 들어 간다고 하여 命令形으로 본다면 더욱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승려가 어찌 大王에게 下符를 써 命令하겠는가. 그리고, 앞의 ‘샤’의 尊稱語를 여러번 쓴 것을 보아도 命令形을 썼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31) 林基中(1981): 「新羅歌謠와 呪術物的 研究」- 呪力觀念을 中心으로 - (二友出版社), pp.293~296.

‘於冬處’는 ‘어디’(小·梁·池), ‘어들이’(俊), ‘어드리’(徐·完) 등의 解讀이 있는데 ‘어드리’나 ‘어드러’는 梁柱東이 이미 풀이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의 俗音 내지 ‘리’이 介入된 後代語로서 15世紀에 쓰인 ‘어드리’(何處)와는 性質이 다르다. ‘어드러’는 副詞性이 있는 말이다. 다음의 例를 보자.

어드로(어디로) 가리라 호노뇨(중간 두언 1:28)
또 어드러(어디로) 가고져 커뇨(중간 두언 3:4)
대 어드러(어찌) 가노니오(子何之)(초간 두언 3:4)

이 文獻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는 向進(方向)이나 處所의 意味도 있겠으나, 初刊 朴詩諺解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明히 ‘何’에 連結된 ‘어찌’의 뜻이 있는 말이다. ‘어드리’는 現代語의 “어디 먹어 보아라” 와 같이 ‘어디’는 ‘어디’에 상당한 轉性副詞로 몸바꿈한 말과 같다. 따라서, 梁柱東과 함께 ‘어드’로 해독함이 適當한 것이다.

‘去於丁’의 解讀도 各 學者間에 一致하지 않는다. ‘가는데’(小), ‘갈려’(梁), ‘가디’(池), ‘가오댕’(諱), ‘가는데’(徐), ‘너더’(俊), ‘가놀더’(完) 등 가지 各색이다. 여기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어’의 解讀인데 이를 ‘늘, 를’의 略音借 ‘리’로 보느냐 아니면, 이들의 變異音 ‘논/느’으로, 또는 ‘놀’로 보느냐의 差異가 있다.

이는 全部 梁柱東의 見解와 같이 ‘늘, 를’의 訓讀에 依存한 풀이겠지만, ‘논/느’으로 한다면 現在進行形이 되어 文脈에 맞지 않는다. ‘놀’의 解讀도 ‘를’의 훈에서 구하려 하였으나 ‘ㄹ~ㄴ’와 ‘ㄴ~.’의 音轉關係가 容易하지 않고 거리가 멀다. 따라서 梁柱東의 ‘갈~’의 解讀이 가장 適當한 것이라 보고자 한다.

‘丁’은 感歎終止形 ‘더’로 해독함이 옳은 것 같다. 原來는 ‘딩’이었으나 音韻變化를 일으켜 ‘더’로 되었으며, 이 말은 語尾 ‘~으려, ~려’의 뜻으로 中世 文獻에는 ‘~져’로 쓰였다. 이 말의 現代譯으로는 ‘갈 것인가’이다.

‘爲尸知’는 ‘홀디’가 大多數의 一致된 解讀이다. 그러나, 이 語節이 八句에 들게 하여 句節을 달리하는 學者가 있다.³³⁾ ‘디’는 ‘디면’으로 解讀하여 ‘것이면’으로

32) 金俊榮: 앞든 책, p.56

33) 小倉·金善琪·金完鎭 등은 八句에 들게하여 ‘할진면’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三句의 ‘호살디’와 달리 해독하는 結果가 되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

보느냐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말도 ‘할 것이면’의 뜻으로 七句에 連結시키는 解讀이 無難할 것 같다.

8. 國惡支持以支知右如

‘國惡支’도 ‘나라해’(小), ‘나라악’(梁), ‘나라웃’(池), ‘나라히’(徐), ‘나라얏’(俊), ‘나라’ (完) 등의 多樣的 解讀을 보인다. 이런 差異들은 ‘惡支’의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고, 特히 ‘支’字 解讀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 ‘支’가 어느 곳에서는 ‘支’와 혼동되어 쓰이고 어느 곳에서는 虛字로 쓰인 例도 많고 해서 一音一義의 解讀法을 지킬수 없는 代表的인 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히, △, ㄱ’ 등으로 좁힐 수 있어 多幸이다. 이 中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筆者의 所見으로는 ‘ㄱ’ 末音(終聲) 強勢添尾語 또는 再添尾語 說에 同調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악’이 ‘나라’의 줄임말로 表現됐는지는 의문이 간다. 따라서 ‘나라악’이라 解讀함이 合理的인 說이라 보고자 한다.

‘持以支’의 解讀은 ‘디더’(小), ‘디니디’(梁), ‘디니히디’(徐), ‘디닛디’(俊), ‘디니기’(完) 등의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支, 支’의 해독차는 매우 難解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支’字 앞에 ‘支’字가 빠져 ‘持以支支’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推測이 있으나, 이를 立證할 만한 資料가 없다. 證明할 수 없는 상상적 해독법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支’를 ‘디’로 해독함이 옳은 것으로 보아 ‘디니디’가 가장 合理的인 해독으로 생각한다.

‘知右如’의 ‘右’는 ‘古’의 誤字임이 틀림 없다. 이의 解讀도 다 音借로 보아 ‘디고다’로 音讀함이 옳은 것 같다.(四句 參照)

9. 後句君如臣多支民隱知爲內尸等焉

‘後句’는 괄호안에 들어 글자 그대로 “이하 二句는 後句에 해당함” 이란 뜻일 것이다. 이 말은 ‘落句’(請佛往世歌·懺悔業障歌), ‘隔句’(稱讚如來歌), ‘後言’(請轉法輪歌)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대개가 感歎詞 ‘아으’로 解讀하고 있으나,

식어로 쓰이게 되어 脈絡이 맞지 않는다.

이 ‘아으’에 해당하는 말은 ‘阿耶, 阿邪, 阿也, 阿邪也’ 등으로 표기되었지 ‘後句’라는 말로 표기되지는 아니 하였다. 勿論 歌意를 더욱 살리기 위해 ‘아으’로 해독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當時의 原表現의 意味는 ‘八句 다음의 二句’라는 뜻으로 쓰였음이 確實한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小倉과 金俊榮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으’나 ‘아야’의 뜻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혀둔다.³⁴⁾

‘君如’에 對하여는 ‘님금다이’(小), ‘君다이’(梁), ‘님감다이’(池), ‘君궁’(徐), ‘君다비’(俊), ‘君다’(完) 등의 解讀이 있지만, ‘如’를 ‘~답다’나 ‘~같다’로 보는 것은 大同小異하다.

그러나, ‘~답이’나 ‘~같’으로 解讀한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語節과 連結이 되지 않는다. 같은 句節에서 같은 意味로 쓰였는데, 어찌 여러 가지로 解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해독의 차이는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다.

‘如’는 義訓借를 한 것이고, ‘多’는 音借를 한 것이다. 그러나, ‘支’와 ‘隱’은 어찌하여 덧붙여 갔는지 모르겠다. 當時의 表現이 一定하지 않은 것인지 같은 여러 말이 있었는지 難解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다’의 副詞形語尾 ‘~이’를 添加시켜 解讀한 梁柱東의 解讀이 가장 合理的이다. ‘민다이’로 解讀하여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로 보고자 한다.

‘爲內戶等焉’도 ‘홀든’(小)을 배격하고 ‘홀닐든’으로 보고자 한다.

10. 國惡太平根音叱如

‘國惡’은 八句 參照

‘太平根音叱如’도 難解句로서 ‘太平하와이다’(小), ‘太平흐니있다’(梁), ‘太平흠싸’(俊·徐), ‘太平흐눔싸’(完) 등으로 解讀되었는데, ‘~흐니있다’로 解讀한다면, ‘니’의 時制가 過去形이 되고 ‘音’이 ‘이’로 解讀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흠싸’를 ‘~함니다’로 解讀한다 해도 現在形이 되어 脈絡의 意味上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흐니’를 ‘~흐리’로 ‘니’가 ‘리’로 바뀐 것으로 보고자 하며 ‘音’을 梁柱東과 같이 ‘이’로 해독하여 ‘~흐리있다’로 보고자 한다. 이때의 ‘~리~’에

34) 崔範勳: 앞든 책, pp.62~67.

있어서의 ‘ㄱ’은 未來冠形詞形語尾이고 ‘ㅣ’는 不完全名詞로 보아 ‘것’으로 해독하고자 한다. ‘~홉싸’나 ‘~호늬싸’는 해독에 충실한 것이나 現在形, 過去形으로 되어 本來의 歌意와 어긋나는 어려움이 있고, ‘~ㅁ싸’형의 말이 과연 當時 現實音으로 存在했느냐도 문제인 것이다. 筆者의 ‘太平호리잇다’도 假說로 提案된 것이지만, 歌意나 앞뒤의 脈絡으로 보거나, 鮮初 文獻에 ‘~니잇다, 리잇다’形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가장 合理的인 解讀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解讀한 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直譯)

1. 君은 아비아
(王은 아버지와 같고)
2. 臣은 드스살 어시어
(臣下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으며)
3. 民은 얼흔 아히고 호살디
(백성은 어린 아해라고 하실 것이면)
4. 民이 드술디고다
(백성을 사랑할지라)
5. 구릿 글(클) 살손 物生
(굶주린 배가 크게 사는 바 나가)
6. 이홀 먹약 다술라라
(이를 먹여 다스려라)
7. 이싸홀 버리곡 어디 갈려 홀디
(이 땅을 버리고 어디에 가리여 할 것이면)
8. 나라악 디니디 디고다
(나라를 보건할 지라)
9. (後句)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호닐둔
(王답게 臣下답게 백성답게 할 것이면)
10. 나라악 太平호리잇다
(나라가 太平할 것입니다)

IV. 結論

이상에서 論議한 바를 중요한 것만 골라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1. 이 研究에서 가장 實地히 느낀 것은, 鄉歌 解讀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現地 調査가 先行되어 化石처럼 남아 있는 古代國語의 방증자료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2. 古代國語에서 ‘님금’이나 ‘님감’은 存在할 수 없다. ‘금’이나 ‘감’(koma)에 ‘님’이 派生接頭語로 붙은 것은 後代에 와서 意味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爲해서 붙은 말이다. ‘님’은 ‘主’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君’은 글자 그대로 ‘군’ 또는 ‘금’으로 나타낸 것 같다.

3. ‘父也’를 “아비요, 어미여, 아비라” 등으로 解讀해 왔는데, ‘아비아’로 解讀함이 옳다. 왜냐하면, ‘父’는 ‘압’으로 遡及될 수 있으며, ‘也’는 거의가 ‘야’로 쓰였고 語感上 ‘야’로 불렀음이 틀림없다. ‘압어’보다 ‘압야’가 調和音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4. ‘愛賜尸’를 “드스살, 다사살, 드스실, 드스살, 드스실” 등으로 多樣하게 解讀하고 있는데, 當時 ‘△, ·’의 실현 여부다. 15세기에 쓰이던 ‘△’가 9세기 이전에도 하나의 단독 음소로 실현되었다고 보자엔 의문이 간다. ‘△’가 ‘ㅅ’의 약화된 음으로 흔히 보고 있으나 ‘ㅅ’는 氣가 수반된 음이기 때문에 약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음이다. 따라서 ‘△’음은 11세기 이후 13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單獨 音素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는 ‘드스살’로 해독함이 가장 합리 적일 것이다.

5. ‘母史也’는 ‘엇어’로 遡及解讀할 수 있으니, 앞에서 말한 音聲調和에 依한 것이다. 感歎呼格인 ‘也’는 앞 音節母音에 따라 ‘야’나 ‘여’로 소리날 수 있는 恣意性이 많은 말이기 때문이다.

6. 이 論考에서 가장 核心이 된 ‘窟理’는 ‘구리’로서 ‘끓주런 배(허기진 배, 속이 텅 비어 있는 배)’로 밝혀졌다. 이 말은 現場調査에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朝鮮初期 文獻에도 쓰였음이 確認 되었다. 현재 濟州地域語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이를 더욱 證明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窟理’는 ‘구리’(배)로 거리낌 없이 解讀하는 바이다.

7. ‘大勝’은 ‘클’로 解讀하였다. 이 말은 ‘大)’와 同一한 말로서 古代地名에 資料가 나온다. 이때의 ‘ㄹ’은 現在를 나타내는 副詞形語尾로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大’를 ‘크’로 訓讀하기엔 문제가 있다. 15세기어에도 行氣音 ‘크’는 불완전하게 쓰였다. 그런데 9세기 이전어에 이 ‘크’가 현실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편의상 ‘글/클’로 해독하였지만, ‘글’ 하나로 풀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8. 특히, 古代國語에서 注目할 것은 ‘△, ㅁ’음은 13세기에 와서 音素化된 데 비하여, ‘·’는 그 이전에 陰陽의 對立에 의하여 하나의 단독 음소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主格助詞로 쓰인 ‘隱’과 ‘處’의 구별 표기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는 母音調和에 의한 구별표기인데 당시 母音調和가 실현되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詩歌的 音樂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陰·陽의 區別 表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한다.

◇ 참고문헌 ◇

- 小倉進平(1929): 「鄉歌 및 史讀의 研究」(京城帝大法文學部紀要第一).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博文書館).
池憲英(1948): 「鄉歌麗謠新釋」(正音社).
玄平孝(1962): 「濟州道方言研究」(제1집 자료편)(精研社).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高大出版社).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塔出版社).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現代文學 145호~250호) 1967~1775.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研究」(啓明大出版社).
崔範勳(1977):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東國大韓國文學研究所).
李崇寧(1978):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塔出版社).
金俊榮(1979): 「鄉歌文學」(형설출판사).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서울대출판부).
崔範勳(1981): 「韓國學散藁」(二友出版社).
林基中(1981): 「新羅歌謠와 記術物의 研究」(二友出版社).
崔世和(1982): 「15世紀國語의 重母音研究」(아세아문화사)(三版).
李炳銑(1982): 「韓國古代國名研究」(형설출판사).
南廣祐(1983): 「國語學論文集」(一潮閣)(중판).
崔 喆(1983): 「향가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세문사).
金英培(1985): 「平安方言研究」(동국대학교출판부).
李男德(1985): 「한국어어원연구(1)」(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崔範勳(1985): 「韓國語發達史」(通文館) 1985.
韓國語文學會篇(1985): 「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學」(형설출판사)(重版).
徐映錫(1990): “新羅鄉歌語釋의 問題點” 신라문화 7집, (동국대) 1990.